

韓美 ‘관세 딜’ 완성... 통화스와프 빠졌지만 안정 확보

3500억 달러 분할 투자로 완화
연간 200억 달러 투자 우려에
구윤철 “외환시장 상황따라 조정”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직후 양국 간 관세 후속협상이 타결됐다. 지난 7월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 간 주요 합의내용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이다. 한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제시한 바 있는 관세율의 수준을 낮춰 주는 대가로 3500억 달러(500조원)를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데, 후속협상에서 전액 현금·선불 지급이 아닌, 완화된 방식으로 대체됐다.

이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금 관련 재원 마련은 향후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펀드 모집·운용을 통한 재원 마련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 체결은 무산됐다. 통화스와프는 해외투자·달러유출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막을 일종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우리 측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미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다만 연간 투자액이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열린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로 지불해야 된다”며 “200억 달러를 투자할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를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통화스와프 내용이 빠졌고, 외환시장 안정 장치가 없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200억 달러를 한도로 하지만,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기금 신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한다. 양국은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내려간다. 해당 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된 바 있다. 반도체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또 농업부문에서는 쌀·소고기 등의 추가개방 없이

검역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수준의 합의로 접점을 찾았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부품·복제의약품·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삼성전자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3.58% 오른 10만41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홍보관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실무경험 풍부한 기술형 리더 전진 배치

SK그룹 사장단 인사 단행
이형희 수펙스 사장, 부회장 승진
SK텔레콤 신임 사장에 정재현

SK그룹이 2026년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지주회사인 SK㈜ 사장에는 강동수 PM부문장이 SK텔레콤 신임 최고경영자(CEO)에는 정재현 최고거버넌스책임자(CGO)가 각각 선임됐다.

30일 SK그룹은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각 관계사 이사회를 통해 확



강동수 SK(주) 담당 사장 정재현 SK텔레콤 사장

심의 조직 쇄신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SK그룹은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을 전진 배치했다. 동시에 기술과 연구 역량을 갖춘 리더를 대거 발탁해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주회사인 SK㈜는 재무와 사업개발 전문가인 강동수 PM부문을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SK텔레콤은 정재현 최고거버넌스책임자(CGO)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삼성전자, 영업이익 12조 넘었다

3분기 매출 86조, 분기 역대 최대
HBM 수요 급증... 전체 실적 견인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이 반도체 사업 실적을 끌어올리며 전체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66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

매출은 86조61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순이익은 12조

2257억원으로 21% 늘었다. 특히 전자 매출은 전분기 대비 15% 증가하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33조 1000억원, 영업이익 7조원을 기록했다.

HBM3E와 DDR5, 서버용 SSD 판매 확대로 분기 최대 메모리 매출을 달성해 전분기 대비 매출이 1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제품 가격 상승과 전분기 발생했던 재고 관련 일회성 비용이 감소하면서 큰 폭으로 개선됐다.

/차현정 기자 hyeon@

SAMSUNG

APEC 2025 KOREA

세계의 리더들이 대한민국에 모여 지속가능한 내일을 그립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삼성이 지원합니다

APEC 2025 KOREA

